

2018 인천 수석 합격수기

합격자안내

합격자안내

홈 > 중등교원 온라인 채용 > 합격자안내

채용문의

- 문의전화
032)4206-558, 559, 560
- 문의시간
09:00~18:00

임용시험 2018학년도 인천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일반구분모집) 교과 미술

> 합격자 확인

최종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차시험성적	75
2차시험성적	97.04
1차취업가산점	0
2차취업가산점	0
총성적	172.04

과목	점수	가산점	환산점	과락점수	과락여부	결시
실기시험	29.33	0	29.33	0		
심층면접	48.67	0	48.67	0		
수업실연	19.04	0	19.04	0		
교육학	16.33	0	16.33	8		
전공과목	58.67	0	58.67	32		

1. 감사합니다.

먼저 위상 선생님, 장지연 선생님 좋은 결과 받게 잘 지도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제가 많이 징징거리고 불안해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해 주시고, 격려해주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왔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고, 합격수기 많이 늦었는데, 간단히 적겠습니다!

2. 저는,

- 비 사범대, 학부 교직이수생이었고, 3수로 합격했습니다.

준비 기간	점수	교육학 강의	전공 강의
학부 4학년 (2016)	78점 (교육학17.33 전공60.67)	김인식T 1,2월만 수강	위상 전 강좌 수강
기간제 1년 (2017)	69.34점 (교육학11.67 전공57.67)	X	위상 34심화, 56서논, 78문풀만 수강
노량진 올인 (2018)	75점 (교육학16.33 전공58.67)	김현T 전 강좌 수강	위상 전 강좌 수강 (기출분석, 교과서분석 제외)

솔직히 1차 성적이 좋지 않아서, 매우 부끄럽습니다만, 이런 사람도 합격하는구나 생각하시라고 적습니다..ㅜㅜ

저는 처음으로 임용을 준비했었던 시기가 4학년이었습니다. 4학년 때에는 학교랑 병행하면서 준비했었고, 이후 떨어지고 나서 임용준비를 또 하는 게 너무 싫어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를 1년 했습니다. 이 때에는 인강만 들었었고, 후반기에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러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일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임용을 준비를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노량진 직강으로 1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다시 준비하려는 첫 시작을 많이 망설였었는데, 위상, 장지연 선생님께서 상담을 잘해주셔서 마음 정리가 잘 됐습니다. 혹시 저처럼 **재수이상**이신 분들은 **불합격의 경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속상하실 텐데, 이 때 장지연, 위상 선생님께 상담하러 가시는 게 멘탈 회복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두 분이 서로 다른 스타일로 상담해주시고, 위로도 많이 해주시니까 동기부여가 많이 되었습니다! 추천드려요.

3. 1차 공부방법은,

- 저는 못 적을 것 같아요.....사실 좋은 성적 받아서 꼭 적고 싶었는데, 1차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오히려 임용 준비하시는 분들께 **독이 될 것 같습니다...** **저 말고 1차 성적 좋으신 분들 공부법 참고하세요...**

4. 학원 모의고사 점수는 연연해 마세요.

- 학원 모의고사는 **등수나 원 점수**를 신경 쓰기보다는, **점수 폭을 유지**하는 게 더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점수나 등수에 민감해서 오히려 멘탈 관리를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TT** 일단 제 점수는 이래왔습니다.

시기	전공 점수	등수(서울 희소)
4월 모의고사	63.1점	5등
5월 1재주	31.5점 (40점 만점)	5등
5월 3재주	31.5점 (40점 만점)	6등
6월 1재주	29.2점 (40점 만점)	8등
6월 3재주	33.2점 (40점 만점)	1등
7월 1재주	70.1점	1등
7월 3재주	61.9점	3등
7월 모의고사	69.7점	1등
8월 4재주	59.7점	12등
9월 1재주	67.6점	1등
9월 3재주	59.14점	14등
9월 5재주	64.7점	4등
10월 3재주	67.65점	6등
평균	65.21점	5.5등

장지연 선생님께서도 말씀해주시겠지만, 모의고사를 볼 때, 등수나 고득점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60점 초반으로 기복 없이 유지하는 게 더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점수 기복이 커서 좋은 표본이 아닙니다.** 그래서 9-10월에 불안감이 심해져서 장지연, 위상 선생님을 붙잡고 늘 징징댔었는데,,,,, **저처럼 하지마시고 초연하게 점수를 꾸준히 관리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일희일비 마시고, **오답정리**를 잘하세요~

배우가 연기 대본을 가지고 연기하는 것이 수업실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황금빛 내 인생의 신혜선이 연기하는 서지안은, 신혜선의 실제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배우는 그 배역에 맞춰서 지안이 연기를 하고, 그 연기를 보는 시청자들은 신혜선을 보면서 서지안이라고 몰입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실연장에서 20분 동안 이상적인 교사를 연기만 하시면 됩니다.** 문제지는 대본이라 생각하시고 그냥 퍼포먼스 하시면 되요. 저도 실제 성격은 진짜 소심하고, 걱정이 많은 스타일인데, 실연 할 때에는 '아 나는 연기자다. 지금 나는 000이 아니라, 참된 교사를 연기만 하고 나오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하니까 부끄럽지도 않고 긴장도 안 되더라고요. 사람마다 실연을 보는 관점이 다르겠지만, 저는 실연할 때에는 연기자라고 생각하니까 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준비는, 올해 서울 합격한 친구랑 둘이서 스터디룸에서 연습했습니다.
 - ① 시간 20분을 맞춰서 실연했고, 끝나고 친구랑 둘이서 서로 피드백 해줬습니다.
 - ② 1차 발표 나기 전까지 1주일에 2~3일 정도, 하루에 약 30분씩 연습했습니다.
 - ③ 실연 주제 : 역대 기출문제

8. 면접은,

- 윤승현T 2차 면접 특강을 직강으로 들었습니다.

지금 위상 미술 합격수기에서 할 소리는 아니지만, 수강료에 비해 강의는 **쓰쓰**였습니다.... 아예 안들을 순 없다고 생각은 해요. 저희가 정보가 없기도하고, 임용 면접은 기업면접이랑 다르니까요. 그래서 들으시긴 해야 할 텐데,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ㅠㅠ 30만 원 정도는 아니였고, 15만 원 정도의 가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강의를 들었냐면, **인천은 면접 점수가 50점**이기 때문입니다. 표면상으로는 실기보다 점수배점이 커서 실기나 시연보다는 면접을 더 많이 준비했습니다. 실연 준비하는 친구랑 둘이서 짝 스터디를 하고, 강의 직강을 다니고, 타 과목 인천 스신 분들이랑 시책 준비도 하는 등 면접에 엄청 시간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1차 발표전까지 면접만 한 기억이에요... **실기, 시연은 좀 등한시 하고 면접에 거의 올인?**을 했습니다.

- 준비는, 올해 서울 합격한 친구랑 둘이서 스터디룸에서 연습했습니다.
 - ① 시간 20분을 맞춰서 연습했고, 끝나고 친구랑 둘이서 서로 피드백 해줬습니다.
 - ② 1차 발표 나기 전까지 1주일에 3~5일 정도(거의 매일) 연습했습니다.
 - ③ 면접 주제 : 역대 기출문제 (윤승현 면접책 문제들)

- 면접 역시 조건과 연기라고 생각합니다.

조건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서 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특히 면접에서는 시연보다 더 연기를 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시각적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연습할 때 **표정, 자신감, 자연스러움, 자세** 같은 부분을 더 많이 신경 썼습니다. 내용은 솔직히 다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임용 면접은 기업 면접과 달리, **즉흥적인 면접이나 압박면접도 없고, 창의적인 답변도 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태도나 분위기, 시각적인 모습들을 많이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시책과 내용 암기도 좋지만, 전체적인 형식을 갖추면 편합니다.

저는 시책은 90% 못 외웠고, 그럴 역량도 안 됩니다. 대신 교육비전, 교육지표는 외웠고, 나머지 핵심 사업들은 키워드나 타이틀만 많이 보고 내용은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모범 답안? 만능 답안?은 3개 정도 외우고 또 포기... 저는 암기형 인간이 아니라 못외웁니다... 그래서 1차도 못봤나봐요... 대신에 저는 **형식은 정리**했습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상형 1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입	2015년도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창의 융합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이 중요합니다. 또한 인천시 교육청이 지향하는 모두가 행복한 인천 교육을 위해서도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을 위한 3가지 방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제 조건	먼저, []입니다. 첫째, [] 둘째, [] 다음으로, []입니다. 예를 들면, [] 마지막으로, []입니다. 왜냐하면 []입니다. 따라서 []
정리	이렇게 저는 []을 위한 3가지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제가 교사가 된다면 이런 점들을 신경쓰고, 전문성과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훌륭한 교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실제에서도 저렇게 답변을 했어요. 저 괄호에 문제를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인천 문제였던 학생과 상담을 괄호에 넣어서 답변을 하면 됩니다. 2015년도 개정 ~~~ 위해서는 [학생과의 상담]이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어떤 문제가 나와도 저 형식에 끼워 넣으면 답변 내용을 떠나서 듣기에 되게 정리되어 보이고, 전문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단 즉답형은 저렇게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대답하시는 게 좋아요~ 구상형은 저렇게 하면 깔끔하고요.

- 답변은 반드시 **간결 + 두괄식**으로 하세요.

저희는 면접을 20분(지역에 따라 10분)을 보는데, 수험생이 많으면 감독관들도 지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다들 기계적으로 모범 답안만 말하는 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실제로 저 채점하신 감독관님들, 진짜 피곤해보이셔서 저 거의 쳐다도 안보셨어요.... 그러니까 **답변은 짧고 두괄식으로 대답하셔야 듣는 사람이 잘 들립니다!**

9. 후기는 **참고만** 하세요.

물론 저는 이렇게 후기를 쓰지만, 또 제 후기가 좋은 글은 아니라서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웃기지만, 후기는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다른 고득점 받으신 선생님들 후기를 읽으실 때도 참고만 하세요. 더군다나 떨어지신 분들 중에는 저보다 점수가 높았는데 떨어지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제가 초수때 딱 그랬어요. '솔직히 딴 데 썼으면 붙었을 텐데... 합격수기 쓴 사람보다 내가 더 점수가 높는데 진짜 억울하다.... 합격자들이라고 특별한 건 없네...' 이런 생각 많이 했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사람인지라 속이 엄청 상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는 후기는 아예 보지도 않았습니. 그래서 저는 **오히려 후기를 보시는 것 보다는 위상, 장지연 선생님들께 찾아가셔서 개별적인 자신의 공부방법 체크를 받으세요.** 그제 나아요. 후기는 말 그대로 후기일 뿐이고, 지금 혹시나 이 글을 읽으시는 재수 이상 선생님들이 더 잘하실 수 있으시니까 주눅 들지 마시고 자신의 공부법을 믿고 준비하세요!

긴 글인데도 도움이 너무 안되네요 ㅜㅜ 죄송합니다... 이게 제 한계인가 봐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올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재수 이상으로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꼭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위상, 장지연 선생님 강의 중간 중간에 문구나 멘트에서 초수 합격생들을 너무 어필하실 때나, 재수를 공부 부족으로 귀인시키는 멘트가 나올 때 저도 정말 힘들었어요. 누군들 초수에 합격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특히나 공부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안

되면 진짜 막막하고, 또 내 친구들은 다 붙었는데 나만 떨어졌을 때의 그 느낌... 저도 그걸 알기 때문에 꼭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공부 하시면서 꼭 스트레스들 푸시고, 다만 그것을 주위 친한 친구들이나 가족들, 더 나아가 스터디원에게 푸시진 마세요. 그냥 혼자서 영화, 드라마, 음악, 쇼핑, 음식으로 푸세요! 너무 힘든 이 길을 걸으실 선생님들의 합격을 응원드립니다!

+ 다시 한 번 더 위상, 장지연 선생님 감사 드립니다! :-)

+ 합격 수기랄 것도 없고 글이 너무 두서가 없어서 인천 지역 2차 정보?가 될만한 파일 같이 첨부해드립니다~